

# 다시, 문자의 의미를 묻다

형체도 없이 존재하는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은 문자만이 갖는다

지난 9월 서강대 수시 2학기 논술고사 답안지 3,700여 장 중 2,000장 가량이 엇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이들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토막 뉴스가 매스컴을 탄 적이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근대화를 추진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결론은 후한 점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채점교수들은 ‘개발’ 하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가르친 주입식 논술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다. 결국 2,000여 명의 답안지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의미를 담은 ‘문자’가 아니라 단순 암기된 그 무엇쯤인 셈이다.

점입가경(漸入佳境), 논술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더 곁들여 보자. 논술이 대입의 당락을 좌우하면서 때아니게 호황을 맞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철학자들이다. 라캉, 들뢰즈, 푸코, 데리다 …, 이름도 다 기억하기 어려운 철학자들이 논술 답안지에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이다. 386세대들이 대거 논술시장에 뛰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철학을 전공한 이들에게조차 난해하다고 소문난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고3 수험생들에게서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것은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결국 수험생들은 자신들의 답안지에 ‘문자’를 던져놓을 뿐, 그 문자를 통해 논술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창의적인 사고’는 하지 못한다.

“글쓰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한 사람의 머릿속에 형체도 없이 존재하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글자라고 부르는 일련의 상징들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

로 전달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달에 로켓을 보내는 것보다도 더욱 경이로운 업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능력이 워낙 보편화된 탓에 아무도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죠.”

아일랜드의 작가 레너드 위벌리가 1962년 발표한 《약소국 그랜드 펜워의 달나라 정복기》(*The Mouse on the Moon*)의 한 대목이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벌어진, 당시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와 지식인들의 허위를 날카로운 풍자로 풀어낸 이 책에서 저자는, 석학 코킨츠 박사의 입을 빌어 글자 혹은 문자의 의미를 다시금 조명해준다.

문자는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당연’한, 그 무엇쯤으로 인식된다. 레너드 위벌리의 표현처럼 “워낙 보편화된 탓”이다. 그러나 글자, 혹은 문자라고 부르는 일련의 상징을 이용해 ‘형체도 없이 존재하는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책을 숙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달을 제집 드나들 듯 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문명보다도 더 경이로운 업적임에 틀림없다. 2006년을 마무리하며 문자의 의미를 다시금 물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면서도, 그러나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시인으로 와세다대학 문학부에서 강의하는 김용교 교수에게서 존재와 사랑의 집으로서의 문자의 의미를, 대덕대학 교양학부 김기명 교수에게 첨단 문명에 빛이 바랜 ‘한글’이라는 문자의 아름다움을 들어보았다. 문자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며 책과 함께 씨름하는 독자들이, 이 땅에 편안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정동석 기자